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개선 촉구

광주시의 산하기관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노조가 27일 "센터의 도덕적 해이와 비상식적 운영이 도를 지나친다"면서 센터의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1노조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시 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와 시 의회는 노조가 추천한 외부 전문 인사들이 포함된 별도 감사위원회를 구성,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기관과 해당 인사에 대한 정당한 행정·법적조치를 하고, 기관의 합리적 운영과 독립성을 확보할 제도를 정비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평화·인권 도시라는 광주에서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온갖 반칙과 낫부끄러운 비상식적인 운영행태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시와 시 의회가 이를 바로 잡으려는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외면, 왜곡하고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센터의 문제점으로 ▲관리 책임자들의 인건비 부족과 도덕적 해이 ▲비상식적 규정, 인사 평가 기준 등 미흡한 제도 ▲차별·편파적 운영으로 내부 갈등 조장 ▲센터 관리직들의 무능과 자질 부족 등을 꼽았다.

노조는 "센터가 비정규직에 불합리한 규정을 적용해 자각·별급형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 해고를 일삼아 왔다"면서 "불합리한 규정들이 노동위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으나 일부 규정은 개선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지난해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센터가 비상식적 대응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2차 피해를 조장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종결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센터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미루고 있고, 피해 진수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휴무, 추가수당 책정, 지급, 징계 규정 등에서 운전직과 사무직 간 차별이 존재한다. 운전원들은 정해진 평일 휴무일과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하고, 주말 근무도 휴무·수당에서 사무직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추가수당 예산안도 의도적 차별이 확인됐다"며 적정 노동시간과 적정 임금을 요구했다.

운전원 호봉 적용요류로 급여를 1년 가까이 잘못 지급한 사실도 드러나 추후 지급한 일도 있었다고 전

제1노조, 센터 내 도덕적 해이·부조리 지적 시·시 의회에 전면 감사 통해 제도보완 촉구

했다. 이어 "운전직은 직급 승진이 없고 사무직에 대한 징계 규정에 비해 불분명하다"면서 "사무직은 업무상 과실에 대해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무마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노조는 "배차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운전원들을 호출 수와 수익금으로 평가해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운전원과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제도이며, 기관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용자에 의한 고객상 담담 직원들의 잇단 폭언·갑질 피해에 대한 개선책과 차량 정비담당자 전문성 확보, 이용자의 보원사기 확인 절차 보완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센터의 해당 문제들에 대해 시와 시 의회의 문제 해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시실무자의 잦은 인사 이동 등으로 주무부서는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한 상태다. 센터의 위험적 증거를 노조가 직접 제시하라는 요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시와 시의회는 분쟁 당사자 간 정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 센터 측 입장만 청취하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용섭 광주시장 은 노조의 편답에 응하고 센터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광주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금을 출연, 2008년에 설립했으며 위·수탁 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예산 규모는 100억원이 넘으며, 서비스 이용자는 1만1000여명에 이른다.

서은홍 기자



호우 피해로 진도 논 침수 27일 시간당 최대 24mm의 비가 쏟아지고 순간 최대 풍속이 21.6m/s에 이른 진도군 고군면에 서 모내기를 마친 논이 침수됐다.

"학생보다 내 지식" 희망교실 예산 횡령한 녀 나간 교사

5년간 179만원 빼돌려 자녀 간식 학용품 등 사용
광주시 교육청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해임 결정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을 빼돌려 자신의 자녀들의 학용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녀 나간 교사가 결국 교단에서 퇴출됐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희망교실 예산 횡령 등의 책임을 물어 전직 해임 처분했다.

수 년동안 반복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사용 목적 등이 매우 불순하다는 판단에서다.

시교육청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5년 동안 희망교실 예산 179만원을 빼돌려 본인 자녀의 학용품 구입비와 간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교실 사용 목적에 맞게 지출 내역을 작성한 뒤 정작 실제 사용처는 '학생'이 아닌 '자녀'였던 셈이어서 교육적, 사회적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희망교실 예산 이외에도 학급운영비 24만원도 몰래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시교육청은 A씨를 검찰에 수사뢰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또 다른 초등교사 B씨가 학생들에게 사용해야 할

복지예산을 빼돌려 남편 인경을 구입하고 피자를 사먹는데 사용했다가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B씨는 학기초 희망교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또래 상담과 레크리에이션, 사제동행 외식문화 체험, 물품 지급 수요조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다음 사업비 50만원을 챙겨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외식하고 학습자료를 사주는 대신 자신의 가정을 위해 돈을 사용한 점에서 두 교사의 비리 행각은 매우 유사하다.

조인호 기자

'승선인원 초과' 예인선 선장 적발

목포해양경찰서는 승선인원을 초과한 예인선(신박안전법 위반)로 전북 군산선적 19급 예인선 H호 선장 A(76)씨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0시40분께 전남 목포시 히사도 남쪽 180m 해상에서 최대 승선인원을 1명 초과해 운항한 혐의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 순찰활동으로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정원을 초과로 해상을 운항하는 행위는 인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행위로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박안전법은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 남구 비영리노인단체 횡령의혹 수사

광주시 남구의 한 노인복지단체가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남부경찰서는 27일 남구청이 보조금을 받고있는 한 비영리 노인단체의 횡령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구청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지역내 복지단체에 대해 진수조사를 하던 중 노인단체로 지원된 예산이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확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14억원이 지원됐지만 영수증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는 이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중단했다.

남구청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은 경찰은 관계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다.

경찰은 서류를 분석한 뒤 노인단체의 자금 상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보조금 집행내역 등을 분석한 뒤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며 "단체가 운영되지 않으면 이용하던 노인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술마시고 유조선 운항한 50대 선장 적발

헬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200t급 유조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27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전남 오후 10시 20분께 전남 여수 옹동도 남동쪽 6.8km 앞 해상에서 한국선적 석유제품운반선 S 호(216t·승선원 14명) 선장 A (59) 씨를 음주 운항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헬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200t급 유조선을 11km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결과 A 씨는 26일 출항 전 선내 식당에서 선원 4명과 함께 소주 4병을 마시고 같은 날 10시에 여수 만성리 앞 묘박지에서 일본 타고노아라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출항해 옹동도 앞 해상까지 약 11km를 음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날 제보를 받고 여수 옹동도 앞 해상에서 S 호를 정선시키고, 선장 및 선원 상태 음주측정을 했으며 선장 A 씨는 헬중알코올농도 0.184%로 확인됐다. 해경은 선박 안전을 위해 안전 해역에 S 호를 무효 조치 했다.

여수해경은 선장 및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여수해경은 지난 4월부터 여객선 및 국내·외 화물선(급유, 급수, 통신) 등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 운항 단속을 확대 하고 있다.

어린이집서 두 살배기 넘어져 중상

광주 모 어린이집 교사들의 관리 소홀로 두 살배기 원아가 다쳤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2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광주 북구 모 어린이집에 두 살 아이를 맡긴 부모가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부모는 고소장에서 "하원 준비 시간인 지난 20일 오후 4시50분께 두 살 아이가 넘어지며 수족관 탁자에 부딪혀 코뼈가 부러졌다. 교사들의 보호 조치와 시설물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조 교사가 만2세 이하 교실 안에서 아동 8명의 하원을 준비하고 있었고 담임교사는 보조교사와 교대하고 잠시 화장실에 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인호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